

# SI 여파에 2분기 산란계 오리 사육 마릿수 '급감'

### 병아리·새끼오리 줄고, 살처분 늘고... 육계, 한·육우, 돼지는 증가



올해 초까지 이어진 조류인플루엔자(AD) 사태로 산란계와 오리의 사육 마릿수가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2분기 가축동량조사'에 따르면 2분기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5738만3000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16.0%(1089만8000마리) 감소했다.

SI 발생으로 인해 병아리 사육이

줄고 폐사가 증가한 결과다.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산란계 병아리 입식은 지난해 3~5월 1302만6000마리에 달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는 650만2000마리 수준으로 반토막났다. 지난 5월11일 기준 살처분된 산란계는 2518만 마리에 이르렀다.

오리는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2분기 오리 사육 마릿수는 646만 마

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9.7%(424만5000 마리) 감소했다.

감소 원인은 산란계와 같다. 새끼 오리 입식은 지난해 3~5월 1897만5000 마리에 달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는 894만2000 마리 수준으로 떨어졌다. 5월11일을 기준으로 오리 살처분은 332만 마리로 집계됐다.

반면 육계의 경우 2분기 1억420만5000 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3.2%(319만1000마리) 증가했다. SI 파동에도 산지가격이 호조를 보이면서 병아리 입식이 늘어난 결과다. 한·육우와 돼지도 2분기 증가세를 보였다. 한·육우는 전년 동기 대비 1.6%(4만4000 마리) 증가한 278만6000마리로 집계됐고, 돼지는 0.7%(7만7000 마리) 늘어난 1043만2000 마리로 조사됐다.

젖소는 40만2000 마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1%(200 마리) 줄었다. 원유감산정책의 영향으로 2세 미만 사육 마릿수가 줄어든 영향이다.

뉴스스



여름 휴가 떠나기 전, 미아방지 지문등록 하고 가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오는 8월 6일까지 경찰청과 함께 미아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7월28일~7월30일, 8월4일~8월6일, 오후 1~7시까지 점내 경찰을 파견해 운영하며, 그 외 기간 동안에는 도열 스텝이 상주한다.

## 기아차, 사드 '직격탄'...2분기 매출·영업익 부진

### 각각 6%·47.6% 감소...상반기 기준 매출액 26조4223억원·영업익 7868억원

기아자동차는 올 2분기(4~6월)에 13조5784억원의 매출액과 404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아차에 따르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와 47.6% 감소한 수치로 중국지역을 중심으로 한 판매 감소와 인센티브 증가 등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2분기 판매 부진 실적은 상반기 전체 매출 하락에도 영향을 줬다.

기아차는 올해 상반기 매출액 26조4223억원, 영업이익 7868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 44.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상이익은 1조 2851억원(39.0%↓), 당기순이익은 1조1550억원(34.8%↓) 등으로 집계됐다.

기아차에 따르면 상반기 글로벌 공장출고 판매는 전년 대비 9.5% 감소한 131만8596대다. (출고기준·해외공장 생산분 포함) 기아차는 지난 3월부터 가시화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사태 영향으로 중국 시장 판매 부진이 글로벌 현지 판매 감소를 불러온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했다.

기아차에 따르면 중국 시장에서만 글로벌 전체 판매 감소분 11만2000여대를 뛰어넘는 11만8000여대

가 줄어들었다. 중국 실적을 제외하면 전체 판매는 0.5% 증가했다는 게 기아차 측 설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국내시장 판매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했다.

미국 시장은 니로의 신차 효과에도 불구하고 볼륨 모델 노후화에 따른 판매 감소와 시장수요 둔화에 따른 경쟁 심화의 영향으로 전체 판매가 9.9% 감소했으며 중국에서도 사드 사태와 구매세 지원 축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4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럽 시장은 승용 차급의 판매 확대와 니로의 인기에 힘입어 전체 산업수요 증가폭인 4.6%를 크게 웃도는 9.5%의 판매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타 중남미(18.6%↑), 러시아(23.1%↑), 중동·아프리카(1.2%↑) 등 주요 신흥시장에서의 판매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글로벌 공장출고 판매 총 131만8596대 가운데 국내 공장 판매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76만12036대다.

기아차는 국내공장에서는 내수 수요 둔화에 따른 판매 감소와 멕시코 공장에서의 생산 이관에 따른 미

국 수출 불량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해외공장에서는 멕시코 공장 생산 확대 및 유럽 시장 판매 호조에 도 불구하고 중국판매 둔화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6.7% 감소한 55만6560대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RV 등 고부가가치 차종 판매 확대에 따른 판매단가 상승 효과에도 불구하고 판매 감소, 원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전년(27조994억원) 대비 2.5% 감소한 26조422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원가율은 원화 강세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0%포인트 증가한 81.7%를 기록했으며 판매관리비는 인센티브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방어를 위한 전사적인 비용절감 노력에 힘입어 1.4% 감소했지만, 판매관리비 비율은 매출액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한 15.3%를 기록했다고 기아차는 설명했다.

한편 기아차는 상반기 주요 신흥시장에서의 판매량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멕시코 공장의 본격 가동으로 올해 상반기 멕시코 시장 판매가 전년 대비 74.7% 증가하는 등 중남미 시장에서 전년 대비 18.6% 증가한 10만1931대를 판매했다.

## 광양지역 중소기업

### 평균 하계 휴가 3.9일

광양상공회의소(회장 김효수)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광양지역 상시종업원 10인 이상 300인 이하 연매출 50억이상 중소기업체 5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하계 휴가 계획 조사에 따르면, 하계휴가를 실시할 계획인 업체가 97.8%이며, 평균 휴가 일수는 3.9일로 나타났다.

또한 하계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체 중 66.7%가 휴가비를 지급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하계휴가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기업체 중 하계휴가 실시형태는 특별휴가가 31.8%, 연월차로 대체 실시가 68.2%로 나타났다.

휴가일수는 4일간(33.3%) 실시 예정인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5일(24.2%), 3일(18.2%), 2일(9.1%) 순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자 자율 및 작업여건에 따라 15.2%)

신호하는 하계휴가 기간은 8월 첫째주(61.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남동부취재본부장=김승호 기자

## 올 상반기 국내선 지연율, 진에어 1위 '불명예'

국내 항공사 중 올 상반기에 지각운항을 가장 많이 한 항공사는 진에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발간한 '2017년 2분기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진에어의 국내선 지연율은 18.66%로 가장 높은 지연율을 보였다. 지난 1분기에는 17.6%(1위)를 기록했다.

국내선 지연율은 이·착륙이 30분 넘게 늦춰지는 운항비율을 말한다.

진에어에 이어 에어부산(14.80%), 제주항공(12.96%), 티웨이(11.13%), 대한항공(10.92%), 아시아나(9.28%), 이스타(5.47%) 순으로 지연율이 낮았다. 이스타항공은 항공사 중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개선 폭(21.64% 감소)을 나타냈다.

다만 올 2분기 국내선 지연율은 11.66%로, 전년 동기 대비 9.87%포인트 낮아졌다. 국토부 측

은 "지난 해 10월 발표된 국토부의 항공기 지연운항 개선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고 전년에 비해 강풍 등 악천후가 감소한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분기 국제사의 국제선 지연율(이·착륙 기준, 1시간 초과 운항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0.13%포인트 감소한 3.44%를 기록했다.

항공사별로는 아시아나가 5.41%로 지연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항공이 3.23%, 대한항공 3.07%, 이스타 2.97%, 티웨이 2.81%, 진에어 2.36%, 에어부산 1.68%, 에어서울 0.41%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유럽 노선의 항로혼잡이 늘면서 국제선 지연율이 다소 증가했다"며 "단거리 노선이 비중이 높은 저비용항공사는 최근 지연이 잦았던 중국 노선의 비율이 줄면서 국제선 지연율이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활기찬 산업현장!

# 노·사 갈등을 넘어 상생할수 있는 전남노사민정 사적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 ▶ 노·사, 노·노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라남도 노사갈등 조정해결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 노·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이로서향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

